

————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묵상집 ————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 39:23)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안내

- 주제 :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창 39:23)
- 일시 : 4월 3일(월) ~ 8일(토), 새벽 5시
- 장소 : GRC역삼모임공간 메타아트홀(테헤란로 143 고운빌딩 지하1층)

* 다음세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 4시 30분 ~ 5시까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고난주간 특새 기간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식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시는 길

1) 주차 안내

- 하나금융 강남사옥(그레이스타워) 주차장 이용(주소: 테헤란로 127 그레이스타워)
- * 예배당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니 참고하여 시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도회 후 '당일 주차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중교통 안내

- 버스 146, 341, 360, 3412 탑승 후 '역삼역' 정류장(강남역 12번출구) 하차
- 버스 740 탑승 후 '역삼역,포스코타워역삼' 정류장(한서병원 방면) 하차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 역삼역 4번 출구 방향으로 도보 약 200m

3. 담당자 안내

- 진행담당 : 서형원 목사 010-9875-1225 / hwseo87@gmail.com
- 주차담당 : 정주영 목사 010-3588-8452 / juyoung3838452@gmail.com
이창민 전도사 010-9376-8029 / ahsem1324@gmail.com
- 긴급기도제목 담당 : 이경혜 전도사 010-9174-0803/ leetomato5@gmail.com
- 간식지원담당 : 이경혜 전도사 010-9174-0803/ leetomato5@gmail.com
- 다음세대담당 : 정주영 목사 010-3588-8452/ juyoung3838452@gmail.com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 묵상집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참여하신다면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오늘의 결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을 활용하셔서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로 도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일주일'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감의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는 '정오의 찬양곡'을 들으며 예수님의 하루를 묵상하고, 나의 하루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일년 간, 사감의교회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 묵상글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점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점심에 묵상한 '오늘의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기도문'을 작성해보세요. 예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금식

'한섬치고 금식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개인별, 또는 가정/다락방/GBS별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일주일 중 정한 끼니를 금식하고 식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한섬치고 금식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 '한섬치고 금식 특별헌금'은 토요일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에 드립니다.

* '한섬치고 금식 특별헌금'은 신학생과 다음세대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 '한섬치고 금식 챌린지'의 은혜를 사감의교회 홈페이지 은혜나눔방에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

'한셈치고 금식 챌린지'

그리스도인의 금식의 뿌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갈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큰 적은 때론 그분의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나의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조금씩 무더지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행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포기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미로운 갈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음식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존 파이퍼_금식기도 中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내가 금식하며 행하거나,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내용을 적어보고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금식 시간

하루 중 언제 금식할 것인가?

금식 방법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목상 내용

금식하며 행하거나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17

본문:

제목:

오늘의 결단

○

○

오늘의 묵상: 마가복음 11장 12~19절

-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 13 멀리서 앞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앞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침에 작성한 '오늘의 결단'을 다시 확인해봅시다.
오늘 하루,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하루 이야기

월요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된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남은 하루를 살아내 봅시다.

사권의 이야기: 사권의 여정

교회가 세워지고 일 년,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아픔, 기도가 씨앗이 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세대와 청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전히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감화되고 감동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하나님과의 사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선물인지를 경험하는
이 귀한 사랑의 여정을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필사본문: 마가복음 11장 12~19절

-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 멀리서 앞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앞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말씀 필사



오늘의 기도문 |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43

본문:

제목:

오늘의 결단

○

○

오늘의 묵상: 마가복음 12장 38~44절

-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침에 작성한 '오늘의 결단'을 다시 확인해봅시다.
오늘 하루,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하루 이야기

화요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한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렘돈을 드렸다는 것은 온 마음과 진심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다고 평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대조적인 태도를 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태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남은 하루를 살아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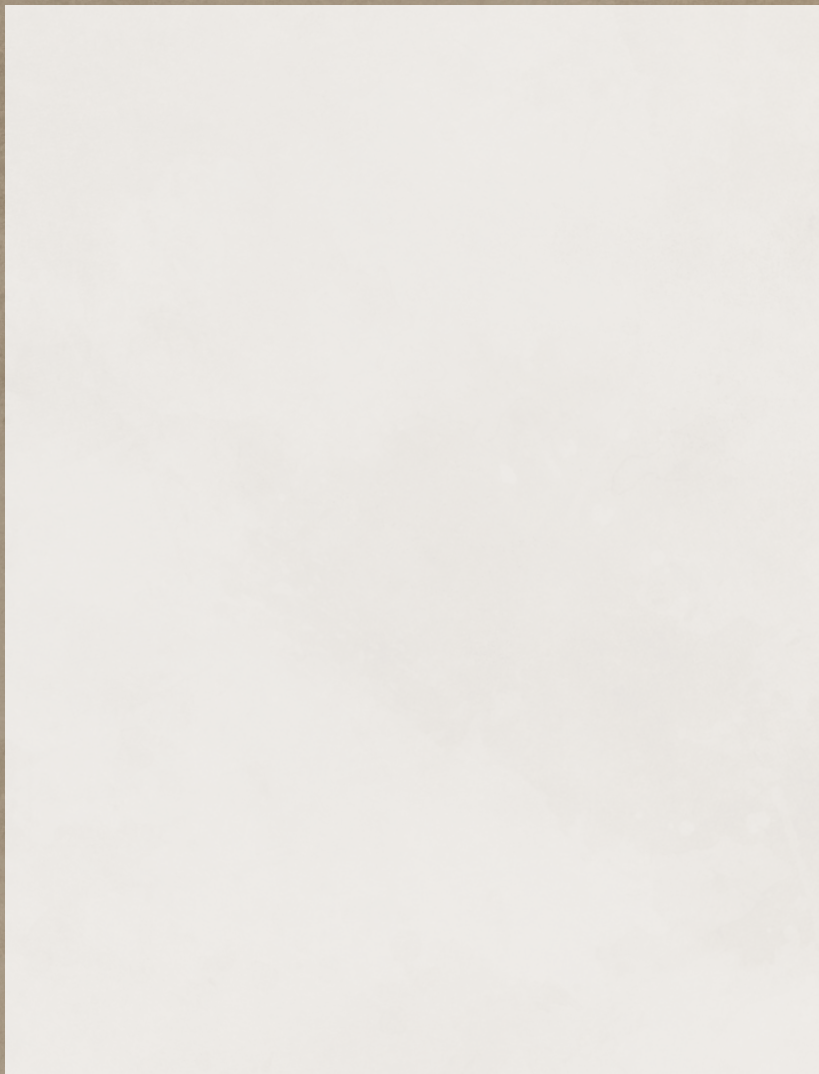
사림의 이야기: 일만성도파송운동

1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성도파송운동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만성도파송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분립개척을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분립개척이 가능할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4월 17일 일만성도파송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림의교회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많은 새가족 등록 성도님들로부터 코로나 기간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일만성도파송운동을 알게되었고, 분립개척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림의교회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
 사림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필사본문: 마가복음 12장 38~44절

-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필사



오늘의 기도문 |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3-9

본문:

제목:

오늘의 결단

○

○

오늘의 묵상: 마가복음 14장 3~9절

- 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침에 작성한 '오늘의 결단'을 다시 확인해봅시다.
오늘 하루,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하루 이야기

수요일,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으로 식사하기 위하여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한 여인의 정성과
 그 정성을 세상의 가치로 환산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비싸고 가치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여인의 모습과 그것을 아까워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무리를 꾸짖으며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여인처럼 이 시간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남은 하루를 살아내 봅시다.

사님의 이야기: 교회 장소 이야기

사님의교회는 분당우리교회 5교구, 강남구 지역에서 분립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소를 찾는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임대료는 너무 높은 금액이었고,
 많은 학교들은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었으며, 공공기관과 상가에서는
 교회에게 임대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만에 기적적으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연결되었고,
 비전센터를 주중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지금, 다시 예배 장소를 구해야 합니다.
 비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다시 은혜의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필사본문: 마가복음 14장 3~9절

- 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필사



오늘의 기도문 |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드리게 하소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b-15

본문:

제목:

오늘의 결단

○

○

오늘의 묵상: 요한복음 13장 1~15절

-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침에 작성한 '오늘의 결단'을 다시 확인해봅시다.

오늘 하루,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하루 이야기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손수 겹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명한명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 예수님은 다시 겹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봅시다.

사림의 이야기: 사림의 청년부

사림의 청년부는 이 땅의 푸른 청년들이 모여 사림의 숲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한 해, 30여명으로 모인 이 숲은 이제 250여명이 거니는 제법 큰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청년을 향한 따스한 기도로 시작된 교회여서인지, 이 곳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알아갔고, 그 사랑에 머무는 법을 배웠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는 시도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사림의 청년부는 한 주 한 주가 새롭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상한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도 매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일 한 리더의 고백이었습니다.

“리더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조원들과 함께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무성하여 숲을 이루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한 해에도 더욱 윤택하게

드리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푸른 숲길을 걸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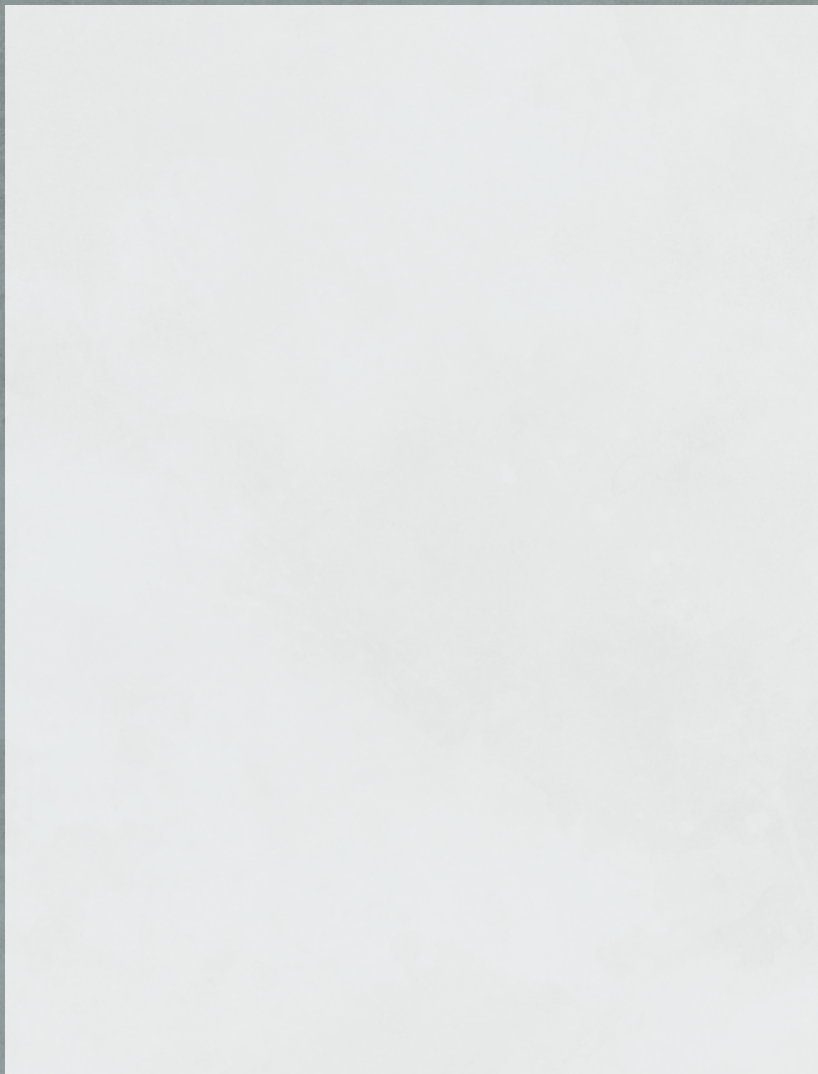
그렇게 숲길을 걷다보면, 큰 숲 어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푸른 생명력이

어느새 우리 모두의 숨결에 느껴질 테니까요.

필사본문: 요한복음 13장 1~15절

-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 필사



오늘의 기도문 | 섬기는 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6:36-46

본문:

제목:

오늘의 결단

○

○

오늘의 묵상: 마태복음 26장 36~46절

-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 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침에 작성한 '오늘의 결단'을 다시 확인해봅시다.
오늘 하루,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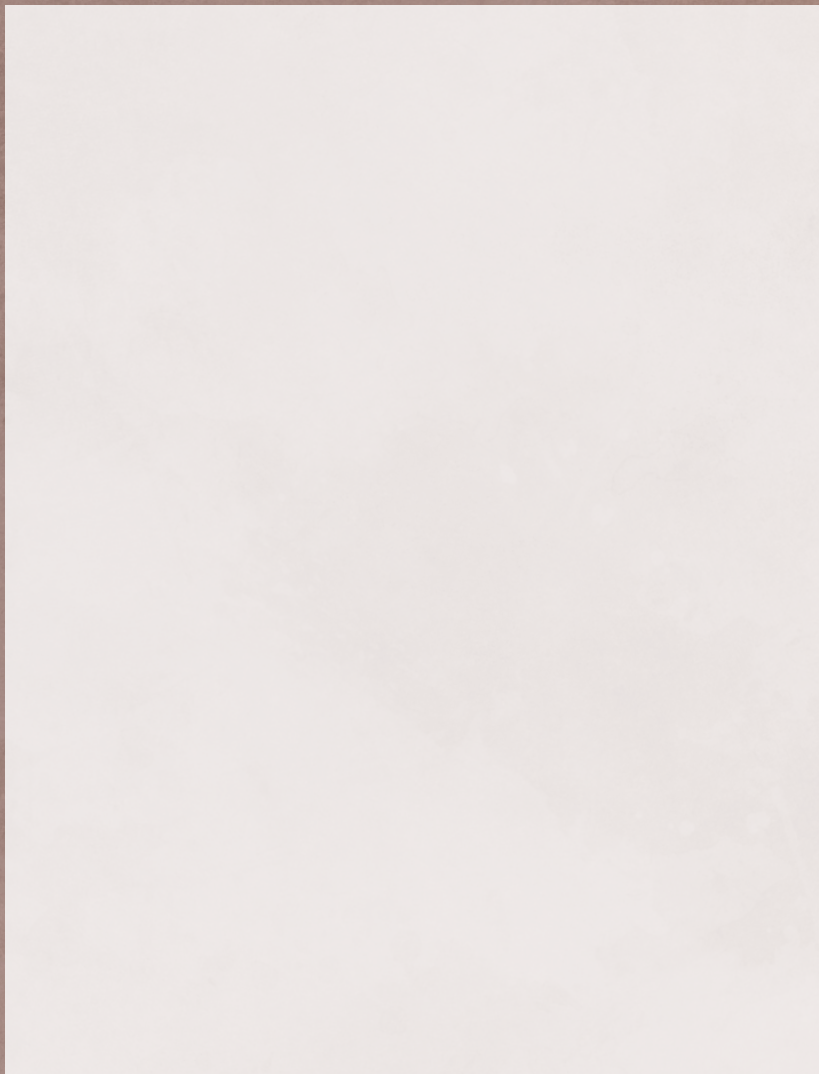
예수님의 하루 이야기

유월절 저녁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가운데에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권의 이야기: 다음 세대

다음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성장하게 하소서!
 공부가 우선이고 학원이 먼저였던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지난 한 해동안 다음세대 부서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겨울, 뜨거운 겨울수련회를 마친 후 드려진 한 아이의 고백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벌써부터 여름수련회가 기대돼요! 여름에도 학원 일정을 꼭 조정해서 수련회 전참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날이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말씀 필사



오늘의 기도문 | 나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23

본문:

제목: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며
주신 은혜를 정리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

——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묵상집 ——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실패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 39:23)